가톨릭제주

생태영성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2019년 7월 21일 〔제2196호〕
편집·발행 : 천주교 제주교구 선교사목위원회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10,41-42)

631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8길 14 / http://www.diocesejeju.or.kr / **사무처** 729-9500 / **관리국** 729-9502 / **복음화실** 729-9501 / **선교사목위원회** 729-9501 / **성서사도직** 729-9503, FAX 729-9514 / **청소년사목위원회** 729-9507, FAX 729-9516 / **가정사목위원회** 729-9599, FAX 729-9598 / **참사랑가정상담소** 725-8025 / **사회사목위원회** 729-9511 / **성소위원회** 729-9506

말 씀

서문본당
서웅범(베드로) 신부

주님 뜻에 맞는 바른 환대

교회는 오늘 전례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를 환대한 이야기와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접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손님을 접대하고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는 일을 주님 섬기듯이 하라고 권고합니다.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참나무 아래에서 낯선 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지쳐 보이는 그들을 무관심으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나그네 환대는 하느님을 환대하는 결과가 되었고, 또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는 하느님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환대 이야기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환대하는 것이 하느님을 환대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복음도, 마르타와 마리아가 자기들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정성껏 접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마르타는 주님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마르타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갑작스레 찾아오신 주님께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었고, 마리아는 '주님을 뵙는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을 풍요롭게 하는 일'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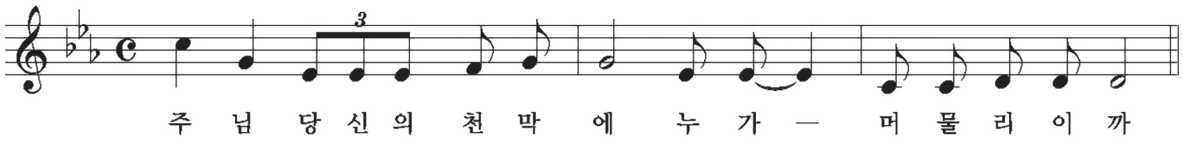
두 자매는 각자 나름대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마리아 편을 들어 주시는 듯합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얻는 것이므로, 주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는 마리아는 참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타는 주님께 '사람의 봉사'가 필요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하시는 말씀과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에 따라 '많은 일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 마르타는 주님께 '사람의 봉사'가 필요하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하시는 말씀과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끔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용주의에 젖은 나머지 사람을 위해 일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보다 일을 중시하거나, 하느님보다 세상 가치를 앞세우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여 자신의 처신이 주님 뜻에 부합하는지를 돌아봄으로써, 애써 하고 있는 봉사와 애덕의 실천이 하느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완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주님 현존 안에 늘 머무르도록 합시다. 주님을 통해 변화되고 충만된 우리의 사랑과 열정으로 이웃 형제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이웃을 보살핌으로써, 주님 원하시는 '서로가 섬기며 환대하는' 평화와 기쁨의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화|답|송|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제 배우자는 제가 선택했어요

사법 대리 황태종(요셉) 신부

과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하고 혼인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여 혼인을 시키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누가 배우자를 선택했나요?" 하고 물어본다면, 모두 "물론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의 내 배우자를 온전히 내가 선택한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혼인 적령기에 있는 어떤 사람은 자신과 혼인이 가능한 모든 이성들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배우자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선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칠레 혹은 알래스카나 러시아 등지에 살고 있는 이성과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제주에 살고 있는 이성들 중에서도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더 나아가 교제를 할 수 있는 상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신과 혼인이 가능한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과 내가 만날 수 있었던 아주 소수의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자신의 배우자로 선택하면서 내가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자신이 만나서 친교를 맺게 되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혼인을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우 한정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었으면서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사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맺는 것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며 신성한 무엇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언제나 종교예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혼인 문제에 종교가 개입을 하냐고 반문하시지만, 실제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권 안에서 혼인이라는 제도가 생길 때부터 최근까지 혼인예식은 언제나 종교예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전통 혼례라 하는 것도 불교식 혼례이거나 유교식 혼례이고 흔히 주례자 앞에서 두 명의 들러리를 세우고 혼인서약을 하고 서로 혼인반지를 주고받는 서양식 혼인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정통 천주교 혼례의 현대식 변형에 불과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한 사람이 주님의 사제직을 받아들이는 사제성소나 한 사람이 장엄하게 수도서원을 발하는 수도성소와 마찬가지로, 혼인도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혼인서약을 하는 혼인성소(聖召, 거룩한 부르심)로 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되는 것 자체와 더 나아가 두 사람이 서로 사귐을 갖고 결국 부부의 연을 맺는 일이 온전히 인간적인 차원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개입(인연, 因緣)이 이루어지고, 그 인연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초대(성소, 聖召)에 인간이 어떠한 강박도 없이 온전한 자유의지로 응답하는 것이 혼인성소의 삶입니다. 사제성소와 수도성소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혼인성소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두 배우자가 함께 하느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혼인예식인데 어찌 합당한 방식으로 준비되고 종교예식으로 치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즈음 천주교 신자들로서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해야 하는 의무를 엄연히 지니고 있고 또한 성당에서 혼례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예식장에 가서 성당에서 거행하는 정통 성사예식을 흉내 낸 소위 서양식 혼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농촌과 농민이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농민 주일의 의미 : 오늘은 하느님 창조의 손길을 이어 가고 있는 생태 사도인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농민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농민들과의 연대의식을 재확인하고 땅과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창세 3,19) 하신 성경 말씀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을 일구며 흘리는 땀과 수고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이 땅을 살리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농업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의 의미 : 인류는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농사를 통하여 삶의 양식을 얻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농촌과 농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손쉽게 구매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농촌과 농민의 존재와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삶의 근거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우리 존재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하느님이시라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이는 농민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농촌과 농민에게 우리의 생명을 빚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25주년 :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창립 선언문을 통하여 농촌과 농민, 그리고 농업의 위기를 우리 모두의 위기로 인식하고, 농민과 도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합 생태론의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을 일치시키는 신앙인들의 참된 자세를 갖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과연 어떻게 이 정신을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 왔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농민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구체적인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며, 다시금 공동체적 실천을 이어 갈 것을 새롭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도시민과 농민의 연대 : 도시민과 농민의 연대는 단순히 도시민이 농민에게 베푸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책임과 연대를 의미합니다. 도시민으로서 피폐해진 농촌과 농민에게 착한 이웃이 되어 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은 참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찬미받으소서」, 3항)라고 가르치십니다. 농민과 농촌이 소외되고 피폐해진다면 그것은 곧 도시민의 삶의 자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우리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파괴와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막는 의인 열 명이 되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인의 참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해 주시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은 결국 교회의 근본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농민 권리 선언 : 2018년 12월, 국제 연합 제73차 총회는 농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농민 권리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농민 권리 선언은 농민들의 삶과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토지, 종자, 정부, 정의,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등 모든 권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농민의 중요성과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선언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 파괴와 공동체 해체, 인간 중심적인 무분별한 소비주의, 사람과 생명을 한낱 도구로 여기는 현상은 농업과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반생명적 삶의 방식과 공동체 파괴, 생태 위기와 기후 변화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들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때 인류 공동체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의 집인 지구의 생태적 위기 앞에서 가장 작고 약한 이들을 위한 신자들의 세심한 연대와 노력을 당부합니다.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통하여 생태적 통공을 나누어 주는 농민들에게 다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땅과 나무, 곡식, 생명 있는 모든 것에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

알림

교구 성령쇄신 기도회 "가정축복기도회"
- 일시 : 7.26(금) 저녁 8시 30분~11시/ 가톨릭회관 지하강당
- 가르침 및 미사 : 고승헌 신부

지구 울뜨레야
- 시서부지구 : 7.28(주일) 오후 2시/ 연동성당
- 남부지구 : 7.28(주일) 오후 2시/ 서귀복자성당
- 준비물 : 길잡이, 타이슬링

상설고해소
- 일시 : 7.22(월) 오후 3시/ 가톨릭회관 2층
- 고해사제 : 주 예레미야 신부(성골롬반외방선교회)

축! 영명
- 김창훈, 강형민, 이승협 신부 : 7.21(오늘) 성 다니엘 예언자
- 이찬홍 신부 : 7.25(목) 성 야고보 사도 축일
- 안성철 신부 : 7.27(토) 성 마조리노

2019년도 어린이 여름 캠프 "곱딱한 하느님의 아이들"
1차 : 7월 27일(토)~28일(주일)
대상 : 남원, 노형, 서문, 성산포, 조천, 중문, 표선, 한림, 화순
2차 : 7월 28일(주일)~29일(월)
대상 : 광양, 고산, 동광, 신창, 연동, 애월, 정난주, 하귀
준비물 : 세면도구, 수건, 수영복, 수영모, 여벌옷(2벌 이상), 모자, 선크림, 개인약품, 봉헌금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일시 : 7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장소 : 법환 마을회관~남원생활체육관(20km)
단체버스 : 오전 9시 10분/ 주교관 집결(제주시 인다7길 24)
참가비 : 20,000원, 버스 신청자는 5,000원 추가(당일 납부)
신청 : 7월 21일(오늘)까지, 각 본당 사무실

중학생 히로시마 평화순례
일시 : 8월 3일(토)~9일(주일)
내용 : 제주-교토교구 교류 프로그램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Spes학교 여름 수련회
일시 : 8월 3일(토) 오후 3시~4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블루하와이리조트(제주시 한림로 77)
집결 : 오후 2시 50분까지, 블루하와이리조트
준비물 : 세면도구, 편한 복장 및 신발, 봉헌금, 묵주, 개인상비약, 자외선 차단제, 여벌옷, 모자
문의 : 729-9506 성소위원회

2019-4차 혼인주말
일시 : 8월 3일(토) 오후 3시~9시
8월 4일(주일) 오전 9시~오후 3시
장소 : 가톨릭회관 2층 회의실
대상 :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참가비 : 1인 30,000원(당일 납부)
신청 : 7월 30일(화)까지, 각 본당 사무실
문의 : 729-9599 가정사목위원회
멘토링 9회기 교육은 수시로 합니다.

예수회 새사제 첫 미사
일시 : 7월 25일(목) 오전 10시/ 신제주성당
새사제 : 김성현(라파엘), 이창준(로사리오)
문의 : 02) 3276-7777 예수회 후원회

제주사라의집 간호조무사 모집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접수 : 채용 시까지/ 문의 : 724-7004, 010-3725-1857

제주애덕의집 조리사 모집
제출서류 : 법인입사양식의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접수 : 7월 23일(화) 오후 5시까지/ 문의 : 729-9512

'행복드라이앵글 3S 통통통'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일시 : 8월 6일(화)~7일(수)/ 성이시돌젊음의집
대상 : 초등부 5-6학년, 45명/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
문의 : 796-7711, 성이시돌젊음의집 홈페이지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2019년 2학기 수강생 모집
대상 :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마감 : 9월 30일(월),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 031) 360-7635, 010-7470-7966

2019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
일시 : 10월 14일(월)~18일(금)/ 접수 : 02) 953-0613
대상 :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귀국한 지 1개월 이상)
주관 : 한국가톨릭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KCFMEA)
주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해외선교 · 교포사목위원회

용수성지 6월 순례객 현황
미사봉헌 사제 : 9명(제주 1명 포함)
순례객 : 2,671명(제주 120명, 미국인 10명, 순천시 한울림교회 24명, 서울 경찰청 힐링캠프-구로구 28명 포함)
안내 및 문의 : 772-1252
용수성지 순례객을 위한 미사는 9월부터 있습니다.

2019 최고의 기대작
창작뮤지컬 '손없는 색시' 초연
일시 : 2019년 7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2회 공연
장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석초대(선착순입장)
작곡 · 음악감독 김경택 베드로

라 파 엘 치 과
임플란트, 치아, 턱관절 교정
방 승 웅 (요한 보스코)
노형동 제주은행 2층
TEL. 747-7528

세기자동차 매매상사
고 혁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H·P. 010-3698-8002
제주시 화남로 8, 108호(화북1동)
T. 743-9112~3 fax. 742-9115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순례(포함)
2019년 10월 2일 4,390,000원
(신부님, 인솔자 동행)
가톨릭 트래블 070-4086-0207
www.catravel.co.kr

제주중앙

주임신부 753-2274(남승택 가브리엘) 보좌신부 753-2270(정진환 대건안드레아)
사무실 753-2271 수녀원 753-2273 Fax.756-5533

- **모니카회, 성도회, 반석회 :** 21일(오늘) 오전 11시 미사 후
- **소화데레사회 :** 21일(오늘) 오후 4시 미사 후
- **환우를 위한 안수기도 :** 25일(목) 오전 10시 미사 후
- **청소년사목위원회 :** 25일(목) 저녁 7시 30분/ 회의실
-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방학**
  방학식 : 28일(주일) 오후 4시 미사
  방학기간 : 8월 4일~9월 1일
  방학 동안 오후 4시 미사는 없습니다.

동 문

주임신부 757-8868(임문철 시몬) 보좌신부 757-8869(서원하 베드로)
사무실 757-8866 수녀원 757-8867 Fax.756-5534

- **안나회 야외행사 :** 25일(목) 오전 10시 미사 후
  장소 : 봉개 쓰레기 매립장~붉은오름
- **소공동체 모임 :** 25일(목) 저녁 8시
-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물놀이 축제(물놀이 에어풀장)**
  일시 : 26일(금)~28일(주일)/ 성당 마당
- **청소년사목위원회 :** 27일(토) 오후 5시

화 북

주임신부(양영수 베드로) 보좌신부(부재환 프란치스코) 725-6004
사무실 756-6004 수녀원 755-6004 Fax.726-6003

- **제118차 ME 환영식 :** 21일(오늘) 저녁 7시
-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일시 : 26일(금)~28일(주일)/ 청수공소 및 삼양해수욕장

조 천

주임신부 784-6175(현성훈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84-6173 수녀원 784-6174 Fax.784-6688

- **하절기 미사 신설 :** 7월~8월, 매 (주일) 새벽 6시 30분
- **사목평의회 :** 23일(화) 저녁미사 후
- **매주 목요일은 소공동체 모임의 날 :** 25일(목)
- **병자 방문 :** 26일(금) 오후 2시/ 병원 및 시설
- **예수성심파이오니아회 :** 26일(금) 저녁미사 후
-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캠프**
  저학년 : 27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고학년 : 27일(토)~28일(주일) 오후 1시/ 마이테르 리조트
- **요한 공동체 소공동체 모임 :**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주일학교 여름방학 :** 28일(주일)

김 녕

주임신부 784-4330(조성호 라우렌시오)
사무실 783-4320 Fax.784-4320

- **대건회, 성모회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첫영성체 교리 :** 27일(토) 오후 2시 30분

동 광

주임신부 721-9910(고병수 요한) 보좌신부 721-9917(양용석 바오로)
사무실 721-9911 수녀원 721-9912 Fax.721-9914

- **7월 전례담당, 미사안내, 주차안내, 본당청소 :** 동광초등 구역
- **성경통독 :** (월~토) 평일미사 시작 15분 전
  내용 : 잠언 19,1-21,5
- **주일학교 방학식 :** 21일(오늘) 가족미사 후
- **초등부 저학년 여름 신앙학교**
  일시 : 21일(오늘) 오전 10시~오후 2시
- **안나회,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작은 바자회**
  일시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첫영성체 가정교리 1학기 종강 :** 26일(금) 합동 교리 후
-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 27일(토)~28일(주일)
- **초등부 고학년 여름 신앙캠프**
  일시 : 28일(주일) 오후 2시~29일(월) 낮 12시
- **사목평의회, 친교의 차 나눔 행사 :** 28일(주일) 가족, 교중미사 후

김 기 량

주임신부 722-1224(이찬홍 야고보)
사무실 722-8866 수녀원 722-1225 Fax.722-8867

- **예비자 성지순례 :** 21일(오늘) 오전 10시
- **함께하는 여정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바리톤 한동훈과 함께하는 음악회**
  일시 : 22일(월) 저녁 7시/ 대성전
- **빈첸시오회 :** 23일(화) 저녁미사 후
- **성서 40주간, 첫영성체 가정교리 :** 26일(금) 저녁미사 후
-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 27일(토)/ 성당
- **사목평의회 :**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수험생 부모 기도모임 :** 매 (주일) 저녁미사 후/ 2교리실

광 양

주임신부 755-0700(이영조 바드리시오)
사무실 753-4498 수녀원 753-4497 Fax.756-5535

- **예비신자 생활교리**
  일시 : 21일(오늘) 오전 9시 20분, 28일(주일) 오전 9시 40분
- **제분과위원회, 안나회 :** 21일(오늘) 오전 11시 미사 후
- **성령기도회 :** 22일(월) 저녁 8시/ 교육관 2층
- **견진 교리 :** 24일(수) 저녁미사 후/ 교육관 2층
- **소공동체 모임 :** 25일(목) 저녁 8시(저녁미사 없음)
- **빈첸시오회 :** 26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사제관지하 1호
- **사목평의회 :** 26일(금) 저녁미사 후/ 교육관 2층
- **여정 봉사자 모임, 요셉회, 반석회**
  일시 : 28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후
- **마리아 사제운동 체나콜로 :** 매 (주일) 오전 7시 30분

서 문

주임신부 757-2979(서웅범 베드로)
사무실 753-2979 수녀원 753-3384 Fax.756-5536

- **청소년사목위원회의 :** 23일(화) 저녁미사 후

❖ **소공동체 모임 :** 25일(목) 저녁 8시
❖ **제분과회의 :** 26일(금) 저녁미사 후
❖ **평신도단체사도직협의회 :** 28일(주일) 오전 10시

신 제 주

주임신부 (윤성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보좌신부 (최현철 안드레아)
사무실 742-4678 수녀원 742-4679 Fax.743-2727

❖ **42기 여정 종합교리, 44기 여정 입문교리**
일시 : 21일(오늘) 오전 9시 30분
❖ **소공동체협의회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소공동체 모임 :** 25일(목) 저녁 8시
❖ **청소년사목위원회 :** 26일(금) 저녁미사 후
❖ **견진성사 :** 10월 27일(주일) 교중미사 중
교리 : 8월 2일~10월 25일, 매주 (금) 저녁미사 후

노 형

주임신부 742-9121(김석주 베드로) 보좌신부 743-2407(문창건 루도비코)
사무실 742-9122 수녀원 742-9123 Fax.742-9124

❖ **6월 입교자 받아들이는 예식 :** 21일(오늘) 교중미사 중
성모 승천 세례자 사제 면담 : 28일(주일)
성모 승천 세례자 선발예식 : 8월 4일(주일) 교중미사 중
❖ **꾸리아 연석회의 :** 25일(목) 저녁 7시
❖ **청소년사목위원회 :** 25일(목) 저녁 8시
❖ **성경쓰기 노트 봉헌 :** 28일(주일) 교중미사 중
❖ **레지오 미사 및 성시간 :** 8월 1일(목) 저녁 7시 30분
❖ **울뜨레야 :** 8월 1일(목) 성시간 후
❖ **병자 영성체 :** 8월 2일(금) 오전 9시
❖ **사목평의회 :** 8월 2일(금) 저녁미사 후
❖ **성모신심미사 :** 8월 3일(토) 오전 6시 30분

연 동

주임신부 744-7812(양요왕 요한)
사무실 744-7811 수녀원 744-7813 Fax.743-8004

❖ **주일학교 방학식 :** 21일(오늘)
여름방학 : 7월 22일~8월 31일
❖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캠프**
유치부~2학년 : 21일(오늘)
3학년~6학년 : 28일(주일)~29일(월)
❖ **성소후원회, 위령회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청소년사목위원회 :** 21일(오늘) 저녁미사 후
❖ **소공동체 모임 :** 25일(목) 저녁 8시
❖ **제대회 :** 27일(토) 오전 9시
❖ **사목평의회 :** 27일(토) 저녁 주일미사 후
❖ **요셉회, 하상바오로회,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일시 :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소공동체협의회 :** 8월 1일(목) 저녁미사 후
❖ **제분과위원회 :** 8월 2일(금) 저녁미사 후

정 난 주

주임신부 712-2332(고남일 요셉)
집무실 743-0892 사무실 743-0893 Fax.712-0057

❖ **이번 주는 광령 구역 주간입니다**
❖ **사목평의회 친교 모임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펠릭스 베드로회, 대건회 주회합 :** 22일(월)
❖ **재무평의회 :** 24일(수) 저녁미사 후

하 귀

주임신부 713-9004(나기웅 엘리야)
사무실 713-9001 수녀원 713-9002 Fax.713-2106

❖ **소공동체협의회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소공동체 모임 :** 25일(목)
❖ **사회복지 만나나눔 :** 28일(주일) 오후 3시
❖ **사목평의회 :**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성서 40주간 방학 :** 8월 25일(주일)까지

애 월

주임신부 799-9297(이시우 안드레아)
사무실 799-0026 Fax.799-0079

❖ **주일학교 :** 21일(오늘) 오전 9시 30분
❖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 21일(오늘)
❖ **성이시돌 복지의원 후원자 모집 :** 28일(주일) 교중미사
❖ **사목연석회의 :**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한 림

주임신부 796-2044(김형민 베드로)
사무실 796-4044 수녀원 796-3735 Fax.796-1044

❖ **후원회비 납부의 날 :** 21일(오늘)
❖ **위령회 야유회, 제분과협의회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청소년사목위원회 :** 21일(오늘) 청소년가족미사 후
❖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일시 : 26일(금)~28일(주일)/ 성산포성당
❖ **사목평의회 :**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재속프란치스코 한림 루케치오 형제회**
일시 : 28일(주일) 오후 2시

금 악

주임신부 796-4194(이어돈 미카엘)
사무실 796-4188 Fax.796-4196

❖ **다락방 기도 모임 :** 26일(금) 오후 3시/ 교육관
❖ **사목평의회 :** 26일(금) 저녁 7시 30분/ 교육관

신 창

주임신부 772-4045(정필종 도미니코)
사무실 773-1044 수녀원 772-3044 Fax.772-4044

❖ **사목평의회 :** 26일(금) 저녁미사 후
❖ **조수, 용수공소 미사 :** 23일(화) 저녁 8시

고 산
주임신부 773-0040(김진철 루카)
사무실 773-2004 수녀원 773-0004 Fax.773-0140

- **견진성사 :** 21일(오늘) 교중미사 중
- **울뜨레야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소공동체 모임 :** 25일(목) 저녁 8시
- **로사회 :** 27일(토) 저녁 주일미사 후
- **사목평의회 :**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모 슬 포
주임신부 794-2076(이승협 다니엘)
사무실 794-2074 수녀원 794-2072 Fax.794-0409

- **대정성지 환경정비 :** 21일(오늘) 오후 2시
- **여성연합회 :** 27일(토) 저녁 주일미사 후
- **주일학교 여름방학 :** 7월 27일~8월 31일
- **초,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신청, 유아 세례 신청**
  일시 : 28일(주일)까지
- **전례위원회 :** 28일(주일) 오전 9시
- **예비자 모집 :** 7월 말까지

화 순
주임신부 794-0484(최현식 라우렌시오)
사무실 794-0483 Fax.794-0481

- **사목평의회, 요셉회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에코데이(환경정화) :** 21일(오늘) 오후 1시
- **전례위원회, 안나회 :**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 **주일학교 교리 방학 :** 8월 3일(토)부터
- **교무금 계좌번호**(예금주 : 화순성당)
  신협 131-019-523843

중 문
주임신부 738-6124(김선용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38-6123 수녀원 738-6125 Fax.738-6122

- **하상바오로회, 골롬바회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소공동체 구역 모임 :** 25일(목) 저녁 8시
- **초등부 여름 캠프 :** 27일(토)~28일(주일)/ 마이테르 리조트

서 귀 포
주임신부 732-3444(부영호 대건안드레아)
사무실 762-3444 수녀원 733-3444 Fax.733-5551

- **성인 견진 교리 신청 :** 21일(오늘)까지
  견진성사 : 9월 29일(주일) 교중미사 중
- **데레사회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사목평의회 :** 23일(화) 저녁미사 후
- **제대회 :** 26일(금) 오전 10시 30분
- **제대봉사회 :** 26일(금) 저녁미사 후
- **예비신자 환영식 :** 8월 4일(주일) 교중미사 중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초등부와 중고등부 여름 캠프에 영적 물적으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귀복자
주임신부(강형민 다니엘) 보좌신부(라치현 다비드) 733-5525
사무실 733-5523 수녀원 733-5524 Fax.733-5552

-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 신청 :** 21일(오늘)까지
- **성서 40주간 방학 :** 7월 24일~8월 21일
- **지구 울뜨레야 :** 28일(주일) 오후 2시/ 서귀복자성당
- **초등부 고학년 여름 신앙학교**
  일시 : 27일(토)~28일(주일)/ 청수공소
- **초등부, 중고등부 교리 방학 :** 7월 28일~ 8월 25일
  미사 시간은 변동 없습니다.

효 돈
주임신부 767-2353(현문권 토마스 아퀴나스)
사무실 767-2355 수녀원 767-2358 Fax.767-0156

- **성소후원회 :** 21일(오늘) 저녁 7시
- **소공동체 모임 :** 25일(목) 저녁 8시
- **견진 교리 :** 27일(토) 저녁 주일미사 후
- **본당 공동체의 날 :** 28일(주일)/ 차 나눔 : 신하례 구역
- **요셉회, 안나회, 바오로회, 마리아회**
  일시 :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남 원
주임신부 764-6300(김영태 베네딕토)
사무실 764-1712 Fax.764-6100

- **견진 교리 :** 매주 (금) 저녁미사 후
- **하상바오로회, 성모회, 데레사회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주일학교 여름 신앙 캠프**
  초등 3~6학년 : 27일(토)~28일(주일)/ 마이테르 리조트
  중고등부 : 27일(토)~28일(주일)/ 블루하와이 리조트
- **요셉회, 안나회 :**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표 선
주임신부 787-4513(류충렬 대건안드레아)
사무실 787-0173 수녀원 787-4516 Fax.787-4514

- **학부모회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대청소의 날 :** 21일(오늘) 오후 2시
- **월례연도 :**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성 산 포
주임신부 782-3060(양창조 믹도니오)
사무실 782-0500 수녀원 782-0528 Fax.784-7799

- **안나회, 대건회 :**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소공동체 복음나누기 강의**
  일시 : 21일(오늘) 오후 2시/ 강사 : 황태종 신부
- **견진 교리 :** 26일(금) 저녁 7시 30분/ 강사 : 김경민 신부
- **주일학교 저학년 여름 신앙학교**
  일시 : 27일(토) 오전 10시/ 휘닉스 아일랜드
- **우도공소 신축헌금 계좌**(예금주 : 천주교제주교구성산포성당)
  농협 : 351-0876-4925-53
  입금 시 성명(본당)을 꼭 입력 바랍니다.